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안쫑잡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마음속에 품어 두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안쫑잡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마음속에 품어 두다.

안쫑잡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안쫑잡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안쑝잡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안쫑잡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안쑝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안쫑잡-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안쑝잡다
  19세기
- 안쫑잡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안쑝잡-, 안쫑잡-

안쫑잡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안쫑잡다’의 옛말인 ‘안쑝잡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안쑝잡-’은 마음속으로 종잡는 짐작이나 대중을 뜻하는 명사 ‘안쑝’과 어림하거나 짐작하여 헤아리다를 뜻하는 동사 어간 ‘잡-’이 결합한 것이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가 ‘ㅏ, ㅓ, ㅗ, ㅜ’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제2음절 모음이 ‘ㅗ’로 변하고,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안쫑잡-’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안쫑’은 현대 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문헌 속의 안쫑잡다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안쑝잡-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안쑝잡-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I :9

용례 01

문헌 용례

안쑝잡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안쫑잡-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안쫑잡-

출처 1944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2

문헌 용례

안쫑잡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3

문헌 용례

안쫑잡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84 동아일보 12월 28일 6면

용례 04

문헌 용례

일어선 김에 평소부터 안쫑잡아 왔던 불만마저 토해 놓고 봤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안쫑잡다에 관한 주석

‘안쫑잡다’를 ‘안’과 ‘종잡-’이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18세기 문헌에 ‘안쏭 업다’라는 용례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과 ‘종잡-’이 결합할 때 ‘안쫑’으로 된소리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1] 無內囊 안쏭 업다〈1790 몽어유해 보:13ㄱ〉 [예2] 無內囊 안쏭 업다〈18세기후기 한청문감 08:29ㄱ〉

안쫑잡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백문식 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안쫑잡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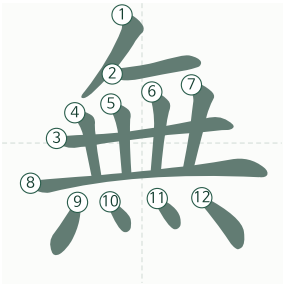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無

뜻·음 없을 무

총 12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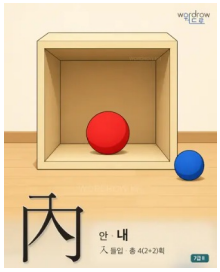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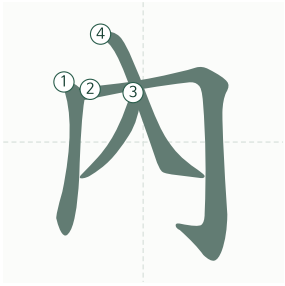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無/

內

뜻·음 안 내

총 4획 · 부수 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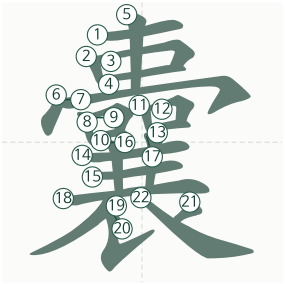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內/

囊

뜻·음 주머니 낭

총 22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囊/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